

제 82 호

현중제 12 주일

(강림후 3)

1974. 6. 23.

숲정이

발행인	김영일
인쇄인	함승천
주간	조심호
편집	한삼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33498)

【강론】

구원의 조건

(루가 9장 18-24절)

김영일 신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루가 9장 18절)하고 물으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중에 베드로사도가 대표로써 "하느님께서로부터 오신 그리스도 이십니다"하고 대답 하셨습니다.

베드로사도의 대답을 예수님은 설명하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아들(人子)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원로들과 대제관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고 죽음을 당했다가 사흘만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루가 9장 22절) 이 간단한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전생애를 예언하시며 우리에게 크나큰 신앙과 희망을 안겨주십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예수성심축일을 지냈습니다. 베드로사도의 "그리스도"란 말씀과, 모니알에서 말거리다 성녀에게 발현하시어 하신 "보라! 내마음을 이와같이 사람들을 사랑한 내마음을"하신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느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보여주셨고, 그 마음은 성신의 대결작이십니다. 바오르사도의 말씀을 빌리면 "그리스도의 인성안에는 하느님의 완전한 신성이 깃들어 있습니다."(폴로사이 2장 9절)하고 서한에 산지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의 상징이며, 예수의 사랑과 자비의 표현입니다. 겐세마니 동산에서의 고통때 예수님 몸에서 피와 땀이 흐르신 것도 마음의 고통의 타격이었고, 십자가에서 눈지노의 창에 찔려 흘리신 물과 피도 교회와 성사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서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즉 "나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버리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합니다."(9장 23절)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는 구원의 두가지 조건을 제시해줍니다.

첫째는 자기를 버리는 일입니다. 즉 개인적이며 이기적인 것을 버리고, 공통체적이고 주님이 요구하는 것을 자기의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조건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었는데,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련을 극복하면서 하느님속에 살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관념은 바오르사도께서 잘 라타인들에게 보낸 서한"나는 이미 율법의 손에 죽어서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느님을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갈라디아 2장 19절)하는 정심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나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 것입니까"(루가 6장 24절)하신 것은 위에 말한 조건을 다 채우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해서 영원한 삶에 새 생명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로 예수님이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하겠습니까"고 물으실때 세자 요한이라든가, 엘리야라든가, 예언자중에 하나라든가 하는 답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그리스도를 바라다보는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활하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리스도"시라고 의결 수 있는 그리스도 우리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뜻에 맞는 대답이 서슴없이 나와야 하겠습니까.

(서학동 주임신부)

* 이주일의 미사 *

(1)개회식

□**입당송** 야훼는 당신 백성의 힘이시며, 당신 메시아의 구원의 방패니시이다. 당신 백성을 구해 주소서, 당신의 기업에 강복주소서. 당신이 그들의 목자 되시고 영원히 그 왕이 되어 주소서.

(2)말씀의 전례

□**제1독서**(자카 12:10-11, 경향잡지 6월호 P) 창으로 찢었던 자를 쳐다보리라.

□**창세기** ◎하느님 내 하느님, 내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내 구원은 바로 당신이시니 당신 날개 그늘 아래 나는 마냥 좋으니이다. 내 영혼이 당신께 의지하올 때, 이 몸을 바른 손으로 붙들어 주시나이다.

□**제2독서**(갈라디아서 3:26-29, 성서 P. 431) 세례를 받은 이는 모두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나도 그들을 알아보니,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알렐루야

□**복음**(루가서 9:18-24, 성서 P. 151) 사람의 아들은 많은 고통을 당해야 한다.

□**신자들의 기도**

1. 사랑으로 삼위 안에 일치됨을 이루시는 성자여, 우리들 가정에 사랑을 부어 주소서. ◎주여.....

2. 우리들의 불목을 싫어하시는 주여, 한 집안 식구끼리 갈라지고 미워하는 풍토를 고쳐주소서. ◎

3. 주여, 이 모든 일들은 우리들 스스로가 제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데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

+ 주여. 비오니, 우리들의 화해를 원하시어 성년을 선포한 거룩한 교회의 참뜻을 알아듣게 하소서. 우리 주.....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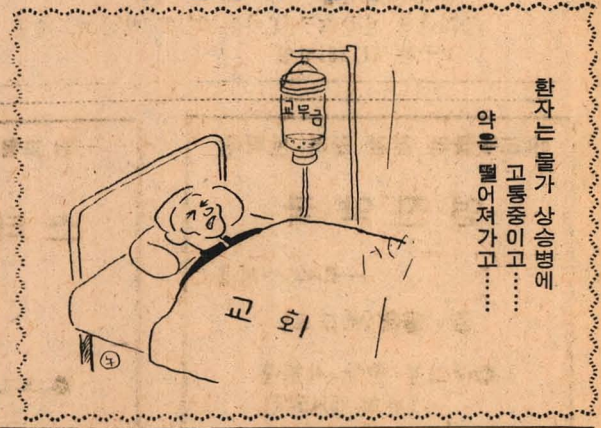
(3)성찬의 전례

성찬식, 불헌.

□**영성체송**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오면, 먹을 것을 제 때에 주시나이다.

(4)폐회식

* 숲정이 산책 *



□이색 리포트□

333.822원

- 왜 이렇가?

주교회의 사무처는 1973년도 전국 교구별 각종 납부금 실적을 발표했다. 성소주일 등 특별헌금을 걷는 일곱 주일의 특별헌금 전국 총액이 17,114,083원인데, 전주 교구가 333,822원으로 단연 전국에서 최하위이다.

경향잡지 6월호 (P. 70-71)와 가톨릭시보 912호(6월 2일자 3면)에 발표된 내용 가운데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발표 내용이 있다. 「교구별로 보면 원주, 청주, 안동, 제주 같은 적은 교구들보다 전주 교구가 더 떨어지는 교우 수로 보나 교구민의 높은 자립정신으로 보아 이해할 수 없는 결과이다.」

다른 것은 다 그만두더라도 우리 교구 (51,808명)보다 교세가 약한 제주 교구가 359,900원(9,252명)임에 주의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 참고로 각 교구의 교세와 납부금 현황을 소개한다.

	교 세(순위)	납부금 총액(순위)
서울	186,285명 (①)	5,982,884원 (①)
춘천	31,062명 (⑫)	573,086원 (⑨)
대전	62,989명 (⑥)	1,080,266원 (④)
인천	55,218명 (⑦)	870,825원 (⑥)
수원	58,978명 (⑧)	878,539원 (⑤)
대구	26,402명 (⑬)	492,580원 (⑩)
부산	82,555명 (③)	2,855,618원 (②)
청주	70,170명 (④)	1,509,605원 (③)
마산	42,550명 (⑨)	471,027원 (⑫)
안동	31,080명 (⑩)	687,272원 (⑦)
광주	23,573명 (⑭)	391,039원 (⑬)
전주	65,984명 (⑤)	627,610원 (⑧)
제주	51,808명 (②)	333,822원 (⑭)
계	797,904명	17,114,083원

※ 주. ①교세 현황은 1972년도 통계임
 ②군에서의 성세자와 이향자 미등록자는 통계에서 제외했음
 ③73년도 전주교구 신자는 61,032명이고, 제주 교구는 11,261명임

□이임 인사□



감사합니다

안 북 진 신부

부족하기만한 제가 주교좌인 중앙성당을 대과없이 4년 6개월간 지켜나갈 수 있었음은 오직 성신의 감도하심과 주교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신부님들의 지도편달, 그리고 교형 자매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이었음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도중에 일치하고, 앞으로 더욱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그 가정에 평화와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박 창 신 신부

저보다도 더욱 열려해주신 제 건강, 오직 감사드릴 따릅니다. 주교님과 여러 신부님들과 교형 자매들의 지도와 협조로 별일없이 전통에 빛나는 전동성당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실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빌며 인사드립니다.

박 창 신 신부

병아리 신부, 여러 어르신들의 사랑만 가득 받고 떠납니다. 주교님과 선배 신부님들, 특히 안북진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도회 임원들과 교형자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디를 가던지 여러분의 기도와 편달해주실 것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항상 기도중에 일치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베드로)

☎육교역 중앙 시장통
(전화 ④4577)

* 교형 여러분의 집 *

스타 사진관

장남수(바오로)

● 오거리동, 동아여관 앞
전화 ③ 6094

☆ 추억의 집 ☆

푸른 사진관

이준영(모세)

○ 전동, 성모병원 건너편
전화 ② 6059

「신 간」



「독 서」

최 신자(말가리다)

말이 생각을 나타내는 거울이라고 한다면 글은 말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기록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서는 이 기록을 머리속으로 흡수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글을 쓴다함은 쓰는 이의 생각을 종이에 쏟아놓는 것이고 독서는 쓰는 이의 생각을 독자가 머리에 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혀지 않은 글이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읽히지 않은 글은 있으나마나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은 글을 통하여 남의 사연도 알게 되고, 지식과 지혜도 교환하고 역사와의 대화도 누리게 되며, 나아가 독서를 통하여 남의 생각의 잘 잘못을 비판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요즈음 우리들은 책을 너무도 읽지 않는다 하여 한탄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이 아닌 일반사람은 글을 멀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양잡지나 돈벌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책을 사서 읽는 것은 한가한 사람이나 할 허물은 일로 생각하기 일수이고, 기껏해야 신문이나 주간지를 읽으면서 일에 바빠 독서를 못한다고 한탄도 합니다.

그러나 바쁜 중에도 책을 읽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주부는 하루 다섯시간이 채 못되는 수면시간이지만, 밤 11시 이후의 애들이 모두 잠든 자기만의 귀중한 시간을 버릴 수 없어 수면의 부족을 알면서도 책을 본다 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자녀의 지적인 성장에 자극을 받아 오랫동안 잊었던 독서의 습관을 다시 찾고자 읽히지 않는 글을 억지로라도 읽어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글이 더욱 많이 쓰이고 읽혀야 할 것 같습니다. 남이 읽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순간에 스스로 읽어야 합니다. 읽어야만 더 잘 알게 되고 슬기롭게 되며, 그러한 사회가 번영과 행복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부들이 시장에서 반찬 거리를 사고 남은 얼마의 돈으로 자신의 교양을 높이기 위한 책 한권이라도 선뜻 사볼 수 있다면 좋겠고, 봉급날이면 아내나 어린 자식을 위한 교양잡지나 책 한권이라도 선물로 사다줄 줄 아는 아빠들이 많아진다면 더욱 흐뭇하겠습니다.

내용이 어려운 것, 쉬운 것, 또는 교육적인 것, 오락적인 것, 심각한 것을 쓴 글이 책가게에서 더 자주 발견되고, 나아가서 적혀있는 글이 담고 있는 사상에 대해서 비판하며 읽을 수 있다면 좋겠고, 자기의 생각하는 바를 그다지 힘들이지 않고도 우리 모두 글로 적을 수 있는 날이 쉬이 오기를 기다려 집니다. <주부>

요심이 (49) 김병오 6.23



가톨릭 센타 프로그램 (관장 신부 범 석규, 전화 ③3498)

매주 일요일 오후3시...이삭회 (성경. 성가. 진전포크송)

매주 월요일 7시 반...메아리합창단

매주 월~목 7시...영어교실

〃 목요일 8시....."목요일 밤에" (남 여 젊은이들의 대화)

〃 금요일 8시.....레크레이션 (주최; 가톨릭 센타와 J.O.C.)

시민상담실-건강, 여성, 외국, 교육, 결혼, 신앙 등 매주 월~토 밤 8~9시

이주간의 성경

- 24<월> 성 요한 세자 탄생 대축일
독서 (이사 49 : 1-6)
(사도행전 13 : 22-26 성서 P. 296)
복음 (루가서 1 : 57-66, 80, 성서 P. 124)
- 25<화> 독서 (열왕후 19:9b~11.14-21.31-35a36)
복음 (마태오 7 : 6. 12-14, 성서 P. 14)
- 26<수> 독서 (열왕후 22 : 8-13. 23 : 1-3)
복음 (마태오 7 : 15-20, 성서 P. 14)

- 27<목> 독서 (열왕후 24 : 8-17)
복음 (마태오 7 : 21-29, 성서 P. 15)
- 28<금> 성 이레네오 주교 순교 기념 (7. 3)
독서 (뉘모후 2 : 22b-26)
복음 (요한 17 : 20-26, 성서 P. 251)
- 29<토> 성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 축일
독서 (사도행전 12 : 1-11, 성서 P. 293)
(뉘모후 4 : 6-8. 17-18)
복음 (마태오 16 : 13-19, 성서 P. 39)

좋은 책을 많이 읽으면
인생을 몇배 더 잘 살
수 있다.

✽성 바오로 서원
T.2~7398

☆집필도장청부 ✽ 고급실크벽지☆

대동 페인트 상사
대동 지업사

●동문 베거리 (풍남동 1가 17)
전화 ⑤5986
임 도민고 (정원)

고급 선물용, 케익, 빵, 파자, 찹쌀떡
◎교우들에게 특별 할인◎

이미 제과소
상업은행 옆 (⑥589)
이미 예식장
남문 옆 (③3915)
김민주 (가타리나)

장의차·꽃상여·입관 입관부속
일체 구비

최 씨 관 집

◎ 교우들에게 특별등가 봉사 ◎
최 병 화 (그레고리오)
전주 남부시장 B동 87호
(전화 ⑥ 6691 교환 85 번)

제4지구 6개 본당 소식



1. **주교 상임 위원회** (6월27일) 및 **임시총회** (28일)
주교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교 상임위원회 위원이신 본교구장 김재덕 주교님께서 이 회의에 참석하십니다.
2. **전주 교구 중·고등 학생 연합회 회장단 회의** (오늘 오후 2시-5시, 가톨릭 센터)
각 본당 회장단의 빠짐없는 참석 바랍니다.
3. **전주 시내 6개 본당에서 노송동 성당 신축을 위한 기도와 특별 헌금** (지난주일)
중앙...3,008원(기공식때 특별 모금했었음), 전동 10,200원, 덕진...3,582원, 서학동...5,000원.
복자...전에 모금했었음.
※ 협조해 주신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4. **전주 시내 주간 성년 행사** (6월28일 오후 7시반, 중앙성당)
① 행사 주례...김환철 신부, ② 7시반...고백성사, 8시...성제강복, 미사 및 특별 강론
5. **다음 주일은 교황주일로 특별 헌금 있음.**
6. **서품식** (7월 3일<수>, 오전 10시반, 중앙성당)
① 사제품...정승현(부안), 박종근(중앙), 서석구(장계)
① 부제품...강인찬(서학동), 김동준(등이리), 박중신(합열), 범선배(전동), 이태주(여수), 한봉섭(수류), 김기수(삼례)
③ 시종직...김병환(수류), 문규현(중앙), 이종원(전동), 강덕창(중앙), 왕수해(김계), 김진석(남원), 한정상(여산)
④ 독서직...왕수해(김계), 나궁별(월명동), 전대복(삼례), 한기호(전동), 소순형(전동), 성태수(둔울동), 김윤섭(합열), 김태윤(중앙), 김준호(김계), 이순성(전동), 이재철(여산)
7. **순창군 쌍치면 공소를** (오룡촌, 중앙리, 내동, 삼실) **신태인 본당에서 다시 순창 본당으로 환원**
8. **가톨릭 중·고등 학생회 프로그램 연구회** (7월 7일<일> 오후 2시, 해성학교)
9. **전출되신 안복진, 범석규 신부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로오신 오대권, 김환철 신부님을 진심으로 환영 합니다**
10. **본당 신부님들과 사도회장님들의 연석회의** (26일<수> 오후 8시반, 가톨릭 센터)

(중앙) 전화 ②651 2651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복석 ③3874

1. **본당 신부님 환영식** (오늘 공식 미사후)
우리 양들을 위해 수고하실 신부님을 환영하며, 기구드립니다.
2. **신부님 영명축일** <6월 29일(토)>
충심으로 위로해 드리고, 기구 드립니다. 축하연 참석 희망자는 사무실에 진입 바랍니다.
3. **꾸리아 월례회** (오늘 오후 2시)
4. **안신부님 환송 감사** (많은 교우님들의 환송을 감사)
5. **버스 제공에 감사**
전북동 박봉익 사장의 버스 실비 제공으로 안신부님 환송을 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 **신용조합 월례회** (6월 30일 공식 미사후 성당에서)
□노송성당 신축 헌금 3,000원
지난 주일 봉헌금 39,201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⑦032 주임 신부 함승현 사도 회장 조해형

1.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일)
2. **예비신자 교리시간** (지도; 본당 수녀님)
주일 공식 미사후 화, 수요일 저녁 8시
3. **노송동 성당 신축에 협조해 주신분 감사합니다.**
대상; 각 성당 교우일동 남자 6월 16일
복자: 20,020원, 전동: 10,200원, 서학동: 5,000원, 덕진: 3,575원, 중앙: 3,000원, 김경생회장: 만원, 이희창: 5천원, 익명: 2천원, 정안철타: 천원
□지난 주 신축기금 39,775원, 누계 1,439,197원, 지난 주 성미 4말 누계 181말
지난 주일 봉헌금 13,750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⑧082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김종환

1. **사도회의** (28일 오후 8시)
각 구역회장님, 고문님들의 전원 참석을 바랍니다.
2. **부녀회 월례회** (다음주일 공식 미사후)
3. **애령회 기금조성 성미 정성것** (적극 협조 바랍니다)
4. **교무금을 완납합니다.** (현재 34%)
덕진동 41%, 금암동 35%, 팔복동 60%, 송전동 30.19%, 전당리 38%, 미산리 13.7%, 동산동 13.2%, 내동리 8.34% 등 34%
본당 운영에 많은 지장이 있으니 나머지 잔액을 빠른 시일내에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봉헌금 6,745원, 감사합니다.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1. **교무금 완납 합니다.** (정성것 협조 요망)
본당 운영에 많은 고충이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완납 부탁드립니다.
2. **부녀회 월례회** (다음주일)
3. **4지구 6개본당 사무장 회의** (24<월>)
빠짐없는 참석 바랍니다.
시간: 저녁 8시 장소: 복자성당
□지난 주일 성미 4말 누계 288말 2되
지난 주일 봉헌금 12,600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②27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이거영

1. **교황 주일입니다.** (다음주일)
교황을 위해서 기도와 헌금 아끼지 맙시다.
2. **예비자 교리** (오늘 공식 미사후)
지도자와 예비신자들께서는 빠짐없는 참석 바랍니다.
3. **교무금을 속히 납부 요망** (본당 운영 곤란)
4. **아동 교리반에 부모님의 적극 후원 요망**
교리: 토요일 오후 6시 미사: 7시반
5. **신용조합 이사회** (25<화>저녁 미사후)
6. **신용조합 월례회** (26<수>저녁 미사후)
□지난 주 노송성당 신축기금 5,000원
지난 주일 봉헌금 8,357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환철 사도 회장 송재진

1. **주일학교 일일교장** (이요섭 <현재 구역장>)
2. **예비자 교리**: 매주 공식 저녁미사후
수요일 오후 3시, 저녁미사후
3. **본당 신부 환영식** (오늘 공식 미사후)
신부님의 전장과 앞날을 위해 많은 기구 요망
4. **미사시간 주일**: 첫미사: 5시반, 둘째미사: 9시
공식미사: 10시, 저녁미사: 오후 8시
평일, 아침미사: 월, 화, 목, 금(오전 5시반)
저녁미사: 수, 토(오후 8시)
5. **재경부 소식** (교무금 미납하신분 속히 납부)
□노송성당 신축 헌금 10,200원
지난 주일 봉헌금 39,320원, 감사합니다.